

2014 세계인권도시포럼  
2014년 5월 15-18일  
대한민국 광주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의 전 지구적 연대

1980년에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 34 주기를 맞아 개최된 2014년 세계인권도시포럼(2014년 5월 15-18일) 참가자는,

1. 2014년 4월 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 모두에게 깊은 애도와 연대를 표하며,
2. 2011년과 2012년 5월 광주 인권도시포럼에서 채택된 인권도시 비전에 대한 실천 약속을 재확인하며,
3. 2013년 세계인권도시포럼 선언문에 담긴 약속을 상기하며,
4. 세계인권도시포럼이 다른 국제기구 및 과정과 연관된 다자간 이해관계자의 국제 포럼임을 상기하며,
5. 2011년 12월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열린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이사회에서 채택된 '도시에서의 인권을 위한 지구헌장-의제'에 대한 실천 약속을 재확인하며,
6.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헌장(2005)을 검토하는 과정에 참여할 약속을 확인하고,
7. 2013년 10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와 2014년 4월 콜롬비아 메델린에서 개최된 국제워크숍의 성과를 환영하고, 2014년 11월 12-14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 예정인 도시에 대한 권리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폭넓은 참여를 요청하며,
8. 2013년 6월 브라질 카노아스에서 개최된 제 3회 세계지방자치정부포럼(FALP) "통합적 지속가능한 도시에서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성과를 환영하며,
9. 2013년 9월 27일에 채택된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A/HRC/RES/24/2)을 환영하며,
10. 유엔 Post-2015 개발의제를 인권에 기반을 둔 도시문제에 대한 접근을 옹호하는 기회로 인식하며,
11. 2016년에 개최되는 제 3차 유엔인간정주회의(HABITAT III)를 도시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고, 인권도시를 새로운 지구적 도시 의제로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며,
12. 인권도시 비전을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증진하는데 광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인식하며,
13. 인권옴부즈맨 신설, 인권헌장 채택, 인권지표 개발과 인권담당관실 설립에 이어, 인권마을과 인권지도 등 한걸음 더 나아간 광주인권도시의 성과를 인정하며,
14. 최초 한국인권도시백서의 발간을 환영하며,
15.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HRCAC)가 작성할 보고서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5월 15일 광주에서 개최된 '지방정부와 인권 전문가 워크숍'의 의미 있는 기여를 인정하며,
16. 인권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포럼기간 동안 진행된 국가폭력과 인권, 환경, 장애, 도시와 여성,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노인과 인권 주제회의의 성과를 인정하며,

17. 인권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수단으로서 광주인권도시 원칙이 2014년 5월 17일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18. 포럼 주최 기관인 광주광역시와 공동주관 단체인 도시와 지방자치단체 연합(UCLG)의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 광주 국제교류센터, 한국인권재단이 포럼기간 동안 훌륭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아낌없이 환대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은 실천약속을 채택합니다.

1.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도구로 광주인권도시이행원칙을 촉진한다.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그리고 기존의 다른 국제기구 및 프로세스에 있는 인권관련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뜻을 같이하는 도시, 시민사회단체, 학계, 그 외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도시의 비전을 증진한다.
3. 도시로부터 인권을 지구화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도시에서의 인권을 위한 지구헌장-의제'를 꾸준히 증진하고 이행하며, 도시와 지방자치단체 연합(UCLG)과 연합의 아시아 태평양 위원회(UCLG ASPAC)와 협력하여 도시 간 연대를 지속적으로 촉진한다.
4. 유엔인권위원이사회의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에 따라 유엔인권기구, 특히 유엔인권이사회(HRC)와 산하 자문위원회(HRCAC), 그리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인권도시 비전과 도시에 대한 권리를 꾸준히 증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5. 한국정부가 결의안 공동 제안자들과 함께 올해 9월 인권자문위원회보고서 제출에 따른 후속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권도시 비전을 증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결론으로,

우리는 광주시장에게 2015년 제 5차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인권도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국제적 담론과 성찰의 장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2014년 5월 17일 광주